어린이 책꽂이

▲희망을 주는 암 탐지견 삐삐=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암 탐지견 복제에 성공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다. 삐삐가 암 탐지견으로 밝혀지는 과정과 주인공 지훈이와 삐삐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렸다. 고정욱 작가는 인세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주니어김영사·8900원〉

▲마음아 작아지지 마=네버랜드 감정 그림책 여덟번째 권. '마음이 작아지는 상태'로 표현되는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이다. 키가 작고, 달리기를 못하는 주인공 부바를 통해 누구나 못하는 것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잘하는 걸 찾아보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복돋운다. 〈시공주니어·8000원〉

▲오월에도 눈이 올까요?=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을 서정적인 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들려주는 '맹&앵 동화책-역사 이야기'시리즈 다섯번째 권. 1980년 오월, 광주에 살던 한 가족에게 일어난 깊은 상처의 기록이다. 권력이나 정치와는 무관한 아빠의 죽음을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맹&앵·9000원〉

▲돼지 오줌보 축구=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즐겼던 돼지 오줌보 공 차기 놀이를 재미나게 그렸다. 온 동네 어린이들이 모여 고약한 냄새가 나는 돼지 오줌보를 공으로 만들어 한 판 축구에 나서는 모습은 떠들썩한 잔치 풍경에 가깝다. 토속적인 글과 그림으로 정겨운 풍경을 살려낸다. 〈사파리·9800원〉

▲난 내가 좋아!=장애를 가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애드리언은 '도전'을 통해 농구를 잘 할 수 있게된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 책은 "난 내가 좋아. 농구를 좋아하는 내가 좋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내가 좋아"라며 자신감이 튼튼한 두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꿈·8500원〉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한국 나이로 백 살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일본의 할아버지 의사 히노하라 시게아키 씨가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할아버지 의사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생명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우리교육·9000원〉

▲고양이와 장화='장화 신은 고양이'를 매력적으로 재해석한 일본의 여성작가 아야노 이마이의 그림책. 영리한 고양이가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구두'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통해 발랄하게 그렸다. 매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괴물과 그때마다 바꿔 신는 신기한 구두들의 모양이 재밌다. 〈느림보·1만원〉

▲마법도시 1, 2=인기 애니메이션 '모래요정 바람돌이'의 원작 동화 작가인 에디스 네스빗의 환상 동화. 도미노·체스 말 등 잡동사니를 이용해 작은 도시를 지은 필립은 어느 날 도시가 현실이 돼 나타났고 자신이 그 도시 속으로 들어왔음을 깨닫는다. 〈아롬주니어·각권 9500원〉

진보학자들 '진보의 미래'에 답하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

이정우 외 지음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와 관련 학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책을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변고로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1년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답사'(答辭) 성격의 책 '노무현이 꿈꾼 나라'가 출간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미완의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 한 진보학자 39명은 '진보의 미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월에 걸쳐 토론과 글을 다듬었다.

이 모임에는 강수돌·강철규·고세훈·고철환·김기원·김기호·성경륭·이정우·장하준·조기숙·황성현 등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참여했다. 주로 진보계열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저자들은 한국 진보세력의 특성과 한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석하기도 하고, 진보와 보수의 개념부터 신자유주의와 진보, 보수의 관계까지 짚어보기도 하며, 보수와 진보의 대립 쟁점을 살펴보기도 한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진보 정권이었나?"라는 물음에 "지향성을 본다면, 두 정권은 여건과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며 "지향성 면에서는 개혁·진보 정권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진보진영은 제3의 길의 일부 논리를 수용했다. 그리고 진보진영은 분열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진보의 미래' 44쪽)라는 질문에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가 마감하는 현재, 전환의 문턱에 있는 사회는 이념 통섭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념적 이분법을 넘어서 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포괄하는 생활 정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 모색과 정책 대안 개발은 진보 진영에게 부과된 엄중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가난한 나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떤 전략이 있을 것인가?"('진보의 미래' 93쪽)라는 화두에 "세계 경제체제의 재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답한다.

장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세가 꺾인다면, 이는 곧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세계은행, IMF, WTO 등이 개발도상국에 행사하는 시장 개방과 자유화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전략의 선택 폭을 그만큼 넓혀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5부 47개 장에 걸쳐 진보주의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주제와 쟁점을 총망라한 다양한 글들이 실렸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아닐지라도 그가 꿈꾼 나라의 대략적인 모습과 '노선'을 읽기에는 충분하다.

〈동녘·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는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관련 학자들과 토론을 통해 책을 쓸 계획이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울릉도·독도 30년 고찰

울릉도와 독도 …

송병기 지음

30년 넘는 세월을 울릉도와 독도 연구에 바친 송병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을 펴냈다.

송 교수는 그동안 '울릉도와 독도'·'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독도영유권자료선' 등 독도와 관련된 연구서들을 꾸준히 수정 보완해 왔으며, 한·일 간에 산재한 독도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해 왔다.

송 교수가 독도를 따로 떼어 논하지 않고, 항상 울릉도와 함께 고찰한 것은 독도가 울릉도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섬이므로 독도의 연구는 오히려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독특한 관점 때문이다.

책의 요지는 조선 정부가 이미 15세기 중엽에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서 독도가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공식 선언했다는 것. 이에 비해서 일본 자료에서는 17세기에나 독도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지만, 그 자료들은 모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한편 이번 책은 파킨슨병을 오래 앓아온 송 교수가 병상에서 완성한 것이라 더욱 값지다. 〈역사공간·1만9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참선 스님들 공동체생활 엿보기

선객- …선방이야기

법광 스님 지음

불가(佛家)에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을 일컬어 '참선하는 나그네', 즉 '선객'(禪客)이라고 한다. 왜 하필 나그네에 비유했을까? 어느 곳에도 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의미에서일 것이다.

진정한 '선객' 법광 스님이 자신의 경험과 부처님 가르침를 바탕으로 솔직담백한 선방 이야기를 엮어 '선객-법광 스님의 선방이야기'를 출간했다.

법광 스님은 '한 생각에 살고 한 생각에 죽는다' 등 3부로 나눠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치열하게 구도에 나서는 모습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성격과 특기를 가진 스님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겪은 박장대소할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그려냈다.

'용상방'(龍象枋·덕 높은 수행자의 명단)'정통'(淨桶·해우소 청소하는 소임), '마호'(磨湖·옷 손질 위해 풀 쑤는 소임) 등 불교의 생활 용어를 통해 불교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1985년 출가한 법광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과 율원을 거쳐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1기로 졸업했고,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6년간 참선을 했다. 해인사, 법주사 승가대학 강사를 거쳐 백양사 승가대학장을 지냈고 현재는 고창 선운사 승가대학장 소임을 맡고 있다. 〈한걸음·더·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서문명이 공존하는 터키

터키, 1만 년의 …

유재원 지음

터키는 그리스-로마-비잔틴 제국으로 이어지는 서양 문명과 오스만 튀르크 등 이슬람 제국의 영광이 함께하는 동서 문명의 교차로다.

아테네에서 유학한 그리스 전문가 유재원 한국외대 교수가 동서 문명과 여러 민족들이 끊임없이 넘나들었던 세계의 교차로 터키의 역사·문화에 대해 쓴 '터키, 1만 년의 시간여행' 1·2를 출간했다.

저자는 역사상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이었던 이스탄불을 비롯해 수도 앙카라,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하투샤, 셀주크 터키 제국의 수도 콘야, 그리스 신들의 도시 밀레토스 등 1만 년의 신화와 역사를 간직한 땅을 하나씩 밟으며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간다.

저자는 1만 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동서 문명교류의 현장을 치열하게 살피면서 터키 땅의 신화와 문명을 퍼즐 맞추듯 흥미롭고 자세하게 엮어냈다.

두 권(1권 12장, 2권 11장)으로 구성된 책은, 각 권마다 터키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유적과 유물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수백 장에 이르는 다양한 사진을 실었다. 또한 여행의 맛을 살리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까지 담고 있는 신화와 역사를 함께 소개해, 터키 땅의 유적들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문·각권 2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 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알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1시간 전에 1정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전혀 안되시는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발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정을 복용후 내일 발기가 잘안되고 생리될 경우에는 1/2정만 나누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주문즉시택배 / 무료배송

상담주문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옥연)

백/발/백/중/

쌍코피

미국 직수입품

일본 최신 3종 제품

1. 언제나 불뚝 불뚝 일어서는 것을 원하십니까?
2. 마음먹은 대로 오랜 롱-런을 원하십니까?
3. 자연산으로 우람하고 큰 것을 원하십니까?

진시황제가 불노초를 눈 씻고 찾을 때 귀가 번쩍 띄었던 그 심정으로 지금 바로 상담하시면 백발백중 쌍코피가 있습니다.

조잡한 유사품에 피해보는 일이 없이 주의하십시오.

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1588-4101, 010-5296-4114

농협 307077-56-075592 전선영

www.핫나경.kr 하가 1188 호

Top 탑부동산투자경매

대표 ☎ 062)368-0789
전화 H.P 010-3602-4840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 124동 맞은편(구 송원대학 정문 앞)
• 전국 경매 물건 상시 상담 가능. 특히, 서울지역 투자 고객/자녀 주거 문제 해결 도우미

■ 직원모집 (경매 유경험자)

광주지역 아파트

구	소재지	아파트명	실면적/실평형	감정가	최저가
동구	소태동	한국아델리움	144/43	3억5천7백	2억4천9백9십
서구	치평동	중흥	84/25	1억3천2백	9천2백4십
	쌍촌동	광명하이츠타운	84/25	8천3백	5천1백8십
	화정동	태영	59/18	6천3백	4천4백1십
	화정동	한양아파트	84/25	1억1천	7천7백
	유촌동	상무주공2단지	59/18	8천3백	5천8백1십
	풍암동	새한센시빌	82/56	1억4천	9천8백
	치평동	우미1차아파트	59/18	7천6백	5천3백2십
	치평동	우미1차아파트	59/18	7천3백	5천1백1십
	쌍촌동	무건빛고을	84/25	1억3천5백	9천4백5십
북구	일곡동	대림2차	84/25	1억2천5백	8천7백5십
	일곡동	롯데	114/34	1억8천5백	1억2천9백5십
	오치동	럭키아파트	84/25	7천8백	5천4백6십
	오치동	고운2차	59/18	5천5백	3천8백6십
	본촌동	현진에버빌	158/48	3억3천5백	2억3천4백
광산구	신가동	우미이노스빌	59/18	9천6백	6천7백2십
	소촌동	이지스위너파크	84/25	1억3천2백	9천2백4십
	운남동	운남주공5단지	84/25	9천2백	6천6백4십
	운남동	운남주공6단지	84/25	1억2천	8천4백
남구	주월동	명지	125/38	1억3천	9천1백
	진월동	아남	84/25	1억3천5백	9천4백5십
	진월동	현대	108/32	1억2천3백	8천6백1십
	진월동	삼익2차아파트	84/25	1억1천5백	8천5십
	백운동	목우	84/25	8천4백	5천8백8십
	봉선동	무등파크	141/42	2억3천3백	1억6천1백

광주지역 오피스텔·원룸·주택

구	소재지	건물명	실면적/실평형	감정가	최저가
서구	치평동	르잔더블파크	156/47	3억5천	1억9천6백
	풍암동	원룸	375/113	3억3천3백	2억3천3백1십
	금호동	원룸	410/124	2억7천6백	1억5천4백
	농성동	원룸	316/95	2억1천7백	1억5천2백
동구	산수동	원룸	696/210	7억2천7백	5억8백9십
	충장로	원룸	572/173	3억1천3백	2억1천9백

광주지역 주택

구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서구	풍암동	203/189	1억5천4백	1억2천3백
남구	봉선동	204/210	1억6천7백	1억1천8백9십
	월산동	331/제외	1억3천8백	4천9백5십
	백운동	593/24	1억3천9백	9천7백

광주지역 주택

구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장록동	291/109	8천7백	6천1백
	고룡동	389/87	4천4백	3천1백
	대산동	397/120	3천7백8십	1천6백9십
	운수동	330/155	1억3천2백	9천2백4십
	남산동	681/88	7천2백	5천
	오운동	813/352	9천	6천3백
	풍암동	648/127	8천4백	5천9백
동구	지산동	76/70	4천6백	3천2백
	지산동	211/118	1억5천2백	1억7백
북구	용봉동	330/235	2억8천3백	1억9천8백
	용봉동	555/108	4천8백2십	3천3백8십

광주지역 근린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우산동	221/540	2억7천6백	1억9천3백
	신가동	241/221	5억4천8백	3억8천3백
동구	계림동	212/578	2억1천5백	1억2천
북구	문흥동	201/322	2억4천1백	1억6천8백

광주지역 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서구	금호동	209/370	3억8천6백	2억7천
	쌍촌동	2128/3788	4억8백8천4백	2십1억8천
	농성동	239/900	6억6천5백	3억7천2백
	쌍촌동	542/984	11억3천6백	7천9백6십
	백일동	862/984	12억4천3백	8억7천
동구	계림동	212/944	5억3백	2억8천1백

광주지역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건물명	건물(㎡)	감정가	최저가
서구	쌍촌동	금호베어스타운	154/46	4억1천2백	1억8천4백
	금호동	호반우미상가동	35/10	6천	2억6천9백6십
북구	본촌동	현진에버빌상가동	59/17	2억7천	7천7백4십
동구	소태동	잔이하이빌상가	78/23	1억2천	6천7백2십

광주지역 토지 (전·답·임야·대)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서구	유촌동	답	2000/605	3억2천	2억2천4백
	치평동	대지	4560/1379	1백2십8억8천7백	7십2억7천9백
	농성동	대지	603/43	7억2천5백	5억7백
	내방동	대지	157/47	7천5백	2천7백
	농성동	대지	2827/855	8십6억7천9백	3십8억8천8백
남구	백운동	대지	238/72	2억9천7백	1억3천3백
북구	신안동	대지	148/45	7천7백3십	4천3백3십
	연제동	대/임야	10334/3126	1십8억5천5백	1십2억9천8백

광주지역 토지 (전·답·임야·대)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산월동	전/답	2655/803	4억7천8백	2억6천7백8십
	평산동	전/대	2169/656	7천9백4십	5천5백6십
	송대동	전	115/47	1천1백8십	8백2십5만

전남지역 토지

지역	소재지	명칭	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화순군	도곡면	임야	6744/2040	2천3십	1천4백2십
	화순읍	임/대	31284/9463	1십1억1천	7억7천7백
	화순읍	답/토지만	2511/759	5억7천7백	4억4백
	북면	임/토지만	11181/3382	7백8십	5백5십
	동면	전	2671/807	2천4백	1천6백8십
담양군	창평면	답	1954/591	3천1백	3천1백
	창평면	답	2760/834	4천4백1십	4천4백1십
	객사리	답	4838/1463	1십억2천1백	3억6천5백
	금성면	잡종지	1041/314	1억8천9백7십	7천1백6십
	월산면	임/지분	190560/57644	2억4천1백	1억6천8백
	수북면	답	1000/302	1천8백	1천2백8십
	수북면	답	350/150	6백3십	4백4십
	남면	임야	10985/3323	2억2천5백	1억5천8백
함평군	함평읍	답	5790/1751	7천9백	5천5백4십
무안군	운남면	답	2930/886	2천9백3십	2천3백4십
	해제면	전	6725/2034	6천1백4십	4천3백3십
나주시	봉황면	임야	2761/841	1천9백5십	1천9십
	봉황면	답	2352/711	7천6십	7천6십
	봉황면	전/임야	2662/805	8천7백9십	8천7백9십
	노안면	답	4096/1239	7천2백	5천4십
	남평읍	전	3226/975	1억7천7백	1억2천4백
보성군	벌교읍	답	16156/4887	1억4천2백	9천9백7십
장성군	진원면	대지	430/130	2천1백5십	1천5백

전남지역 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담양군	담양읍	4500/4909	6십4억7천	2십3억1천9백
장성군	삼계면	411/1047	6억5천1백	2억3천3백
화순군	화순읍	1091/363	3억1천7백	2억2천2백

전남지역 농가관련시설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장성군	삼계면	19891/3893	7억8백	3억8천6백
나주시	노안읍	1471/762	2억7천9백	1억2천5백

전남지역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장성군	진원면	1528/205	1억4천3백	1억
담양군	용면	883/204	1억1천1백	7천8백